

김수화 개인전

## 우리는 거기서 만난다

we meet there

2024.07.23. - 07.28. 북촌전시실

우리는 가상 공간에서 쉽게 연결되고 쉽게 끊어진다. 디지털 매체를 경유하는 우리의 만남은 서로를 물리적으로 더듬을 수 없지만, 개별 신체가 보거나 듣거나 읽는 행위를 하고 이 메시지 뒤에 있을 상대와 만난다는 느낌을 재차 획득함으로써 작동한다. 가상에서의 성공적인 교류를 반복하며 우리는 원하는 정보와 대상들에게 언제나 도달가능할 수 있다는 확신과 충만함의 감정을 은연중에 축적하는데 나는 그것을 충만과 유사한 감정, '유사 충만'이라고 부르고 있다. 물리적인 공동 경험이 부재한 소통 행위가 믿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들에 대한 알아차림과 적응은 디지털 매체들과 함께 파편화된 감각 속에서 살고 있는 2024년의 우리가 확대해서 들여다 보아야 할, 줄곧 갱신 중인 신체 감각일 것이다.

2023년부터 와이파이 신호를 비롯한 무선 통신 주파수를 탐험하기 위해, 신호들을 감각의 영역으로 변환하는 작은 기계를 만들고, 그것을 여러 공간에 설치하면서 주변 환경과 몸의 반응을 관찰해왔다. 신호의 끊어짐과 연결됨, 보이지 않음과 예상할 수 없음, 불안정성과 통제 불가능성 등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나의 몸을 통과할 무한한 신호들을 상상하고, 그 신호들이 통과할 또다른 개체들의 몸을 더듬으며 마침내 먼 시간으로부터 먼 공간으로 향하는 사이에 있기를 선택해본다. 이 전시를 통해 *언제나 이동하는 진동으로서 '우리'가 미지의 '거기'에서 만날 수 있다면*, 이라는 상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보면서 보지 않고, 만지며 만지지 않고, 들으며 듣지 않는 만남에 대한 생각과 수행을 담은 영상과 글을 나누고자 한다.

김수화는 서강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학사 과정,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전문사 과정을 공부한 후 안무가, 퍼포머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디지털 매체 장치들을 몸으로 탐험하는 방향성을 갖고 기계들에 접근하며 스크린그래피(2021), 메타헨즈(2022) 등의 퍼포먼스를 만들어왔다. 미국 뉴욕 워터밀센터(2019), 오스트리아 아트스페이스 밀슈타트(2021), 서울무용센터(2022), 독일 함부르크 K3 탄츠플랜(2023) 등에서 레지던시 및 해외교류 아티스트로 선정되었다.

\*인스타그램: suhwa\_kim\_

\*웹페이지: www.suhwakim.com

\*올해 예정 공연: 2024년 12월 6일-7일, 서울 상암동 문화비축기지

전시 평론: 하라은 (추후 웹 플랫폼에 공개)

Suhwa Kim, Solo Exhibition

## We meet there

2024.07.23. – 07.28. Bukchon exhibition room

We connect and disconnect easily in the virtual space. Our encounters via digital media do not allow us to physically touch each other, but they operate by repeatedly creating a sense of meeting the person behind the message through individual acts of seeing, hearing, or reading. Through successful exchanges in the virtual space, we accumulate a subconscious sense of assurance and fulfillment that we can always reach the information and people we desire. I call this feeling, similar to fulfillment, "pseudo-fulfillment." The awareness and adaptation to moments when communication without physical shared experiences crosses the threshold of belief is a constantly evolving sensory experience in 2024, one that we, living amid fragmented senses with digital media, must closely examine.

Since 2023, I have been creating small devices that transform Wi-Fi signals and other wireless communication frequencies into the realm of sensory perception. By installing these devices in various spaces, I have observed the reaction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my body. In the process of encountering disconnection and connection, invisibility and unpredictability, instability and uncontrollability of signals, I imagine the infinite signals passing through human bodies and other entities. I choose to exist in the space between distant times and distant places where these signals travel. Starting from the imagination of *WE as ever-moving vibrations MEETING in the unknown THERE*, this exhibition shares videos and writings that explore the concept and practice of seeing without seeing, touching without touching, and hearing without hearing.

---

Suhwa Kim, a choreographer and performer based in Seoul, studied Communications at Sogang University and Dance Choreography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r work primarily involves exploring digital media devices through bodily interactions, leading to performances such as *Screengraphy*(2021), *MetaHands* (2022). She has been selected as a resident and exchange artist at various institutions, including the Watermill Center in New York (2019), ART SPACE Milstatt in Austria (2021), Seoul Dance Center (2022), and K3 Tanzplan in Hamburg, Germany (2023).

\*I.g.: suhwa\_kim\_      \*web page: [www.suhwakim.com](http://www.suhwakim.com)

\*upcoming performance: 6-7th in Dec, 2024 at Cultural Tank in Sangam Dong, Seoul  
Critics : Hara Eun (uploading on web platforms later)